

기도

1. 은혜 아래에 계속 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를 죄의 종의 길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받은 연단이 있습니까?

신앙

율법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사법 혹은 의식법, 둘째는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다룬 민법(소송법 포함), 그리고 셋째는 도덕법이다. 이중 앞의 제사(의식)법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완전히 폐지 혹은 완성되었으나(히 10:1-14) 민법 또는 도덕법은 그 정신적 혹은 교훈적 측면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행위의 지침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즉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다(롬 6:14).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의(義)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곧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롬 8:1-4).

구역 공과

2023년 12월 10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로마서 6장 15-20절 (찬28장, 284장)

바울은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15-16절).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15절).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모두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망으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셔서 더이상 율법과 상관없이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붙들고 권능을 부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법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율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써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 인해 죽을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가까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기도 하고, 죄로 인한 죄책감과 낙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16절a).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16절b).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혜로 회개하면 그 은혜의 세계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나아가 의에 이르러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17-20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17-18절). ‘교훈의 본’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보여주신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교훈의 본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 구원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죄의 종이 되고는 합니다(19절a).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20절).

이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19절b).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딤후전4:7-8).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 즉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의의 종이 되게 위하여 힘쓸 때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 밖에 없고 의로워 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종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의의 종임을 깨닫고 다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끊임없이 발견하여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